

2022  
사순절

묵상집

“눈을  
들리라”  
(시 121: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022 사순절 묵상집

2022년 2월 10일 발행

펴낸이 김광옥 김영준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디자인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2022  
사순절

묵상집

“눈을  
들리라”  
(시 121:1)





## 사순절 묵상집에 붙여,

사순절(四旬節)은 ‘40일의 절기’라는 의미로,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그릇된 삶을 참회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40일인 것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여러 개신교회에서는 사순절이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하고 무의미하다고 하여 지키지 않음으로, 오늘날에는 사순절이 잊힌 절기와도 같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순절이 무의미하고, 그렇다고 해서 참회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매일매일이 부활절이라고 한들,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와는 아주 요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참회함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참회는 주님의 새 생명을 온전히 담는 영적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묵상집과 더불어 떠나는 40일간의 참회의 여정이자 영적 순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과 영적 성숙이라는 은총을 누리게 해 줄 것입니다.

2022년 사순절을 맞으며.

# 차례

## 성회 수요일 주간

제1일	3월 2일(수)	이사야 53:1-9	우리의... 우리의...
제2일	3월 3일(목)	요한복음 3:16-21	이처럼 사랑하사
제3일	3월 4일(금)	요한복음 10:11-18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4일	3월 5일(토)	요한복음 10:22-27	솔로몬 행각에서

## 사순절 첫째 주간

제5일	3월 7일(월)	요한복음 11:1-11	이튿날 더 유하시고
제6일	3월 8일(화)	요한복음 11:17-27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제7일	3월 9일(수)	요한복음 11:33-40	돌을 옮겨 놓으라
제8일	3월 10일(목)	누가복음 13:10-17	메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나
제9일	3월 11일(금)	누가복음 13:23-30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제10일	3월 12일(토)	누가복음 14:1-6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 사순절 둘째 주간

제11일	3월 14일(월)	누가복음 14:15-24	큰 잔치를 베풀고
제12일	3월 15일(화)	누가복음 14:25-35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13일	3월 16일(수)	누가복음 15:1-7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제14일	3월 17일(목)	누가복음 15:8-10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제15일	3월 18일(금)	누가복음 15:11-19	허랑방탕하여
제16일	3월 19일(토)	누가복음 15:26-32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 사순절 셋째 주간

제17일	3월 21일(월)	누가복음 16:9-13	검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18일	3월 22일(화)	누가복음 16:23-31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제19일	3월 23일(수)	누가복음 17:1-4	스스로 조심하라
제20일	3월 24일(목)	누가복음 17:5-10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제21일	3월 25일(금)	누가복음 17:11-19	발 아래에 엎드리어
제22일	3월 26일(토)	누가복음 17:20-30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 사순절 넷째 주간

제23일	3월 28일(월)	누가복음 18:1-8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제24일	3월 29일(화)	누가복음 18:9-14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25일	3월 30일(수)	누가복음 18:15-17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26일	3월 31일(목)	누가복음 18:18-23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제27일	4월 1일(금)	마가복음 20:1-16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제28일	4월 2일(토)	누가복음 18:31-34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

### 사순절 다섯째 주간

제29일	4월 4일(월)	마가복음 10:35-45	섬기는 자가 되고
제30일	4월 5일(화)	마가복음 10:46-52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31일	4월 6일(수)	누가복음 19:1-10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제32일	4월 7일(목)	누가복음 19:16-27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제33일	4월 8일(금)	요한복음 12:1-8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제34일	4월 9일(토)	누가복음 19:28-36	주가 쓰시겠다 하라

### 고난주간

제35일	4월 11일(월)	누가복음 19:45-48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제36일	4월 12일(화)	누가복음 22:1-6	죽일까 기회를 찾더라
제37일	4월 13일(수)	누가복음 22:7-13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제38일	4월 14일(목)	누가복음 22:39-46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제39일	4월 15일(금)	마태복음 27:35-50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40일	4월 16일(토)	마태복음 27:57-66	그도 예수의 제자라

\* 이 묵상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40일 동안의 말씀을 최대한 묵상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 성경본문

<sup>1</sup>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sup>2</sup>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sup>3</sup>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sup>4</sup>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sup>5</sup>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sup>6</sup>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묵상글

이사야는 주전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 예언했는지 신비하기만 합니다. 마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같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음에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메시아가 대학자의 집안에 굉장히 총명한 사람으로 오시거나, 로마제국 황제의 아들이나 권문세가의 아들로 오시거나, 당대의 최고의 부자 가문에 태어났더라면 혹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당시 굉장히 천대받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 일을 했습니다. 외모지상주의, 세속적인 가치관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6절에서 반복되는 말은 ‘우리의 ...’입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 건을 수 없는 슬픔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함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범법함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 영원히 죽은 존재였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

내서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은 정말 중요하고도 잊힐 수 없는 절기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드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기도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를 700년 전부터 말씀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세속적 가치관에서 보는 그리스도만 기다리다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다르지 않았을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함이고, 모멸과 모욕, 고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기까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심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이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어 쉴 때까지 잊히지 않는 사건과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❶ 오실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당신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 분이 나의 죄를 지셨다는 것이 언제 받아들여졌습니까? 혹 아직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했다면, “주님, 제 중심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주십시오.”라고 천천히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 ❷ 양은 다른 동물과 달리 목자가 없으면 자생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신 일을 떠올려보십시오.

##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 성경본문

<sup>16</sup>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up>17</sup>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sup>18</sup>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sup>19</sup>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sup>20</sup>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sup>21</sup>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 묵상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야 했고, 영원한 생명과는 영원히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본능만 가진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그것은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도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자신은 굶어도 자녀는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 가능하다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동물은 더 나아 보이는 새끼를 위해서 연약해 보이는 새끼를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일 때가 있어서,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로

인해서 입은 상처를 안고 사는 자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또한 참됩니다. 그 위에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와 ‘이만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 되는 방법으로, 또 그렇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목격 삼고 살아가십시다.

##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 삼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만큼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❶ “하나님이 ○○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에서 ○○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가만히 읽으며 묵상해 봅시다.
- ❷ 세상은 언제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빛의 자녀인 당신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 진리와 생명의 빛이 비쳐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성경본문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샅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그가 샅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 묵상글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두 번이나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영원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양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또 다른 존재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았고, 설령 목숨을 버린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잇대게 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것을 피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과 같은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실 정도로 갈등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갈등과 놀림을 이기시고, 스스로 그리고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만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원칙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임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아셨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17)”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은 믿음이 정체하는 것이고, 퇴보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 눈을 드는 사순절의 한 날이 되게 하십시오.

## 기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스스로 그리고 기꺼이 버리심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집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영원한 것을 버려 믿음이 퇴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② 성숙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버려서 얻게 된 유익이나, 버려서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 성경본문

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4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 목상글

예수님께서서는 ‘수전절(修殿節)’에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새로 수리하고 단장한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주전 2세기경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쿠스4세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성전을 훼파하고,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주전 165년경, 마카베우스가 그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수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하누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전절을 무교절(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더불어 큰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 날짜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동지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찬 바람이 불어대는 때에 기둥과 지붕만 있는 솔로몬 행각을 다니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때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행 3:11; 5:12). 우리의 믿음의 삶은 누군가의 믿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다. ‘너희’는 평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은총이자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순절의 한 날로 살아가십시다.

## 기도

주님께서 찬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는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다니며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은 그 의미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한 후에 그들은 주님과 동일하게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담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믿고자 하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에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총과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총과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그 은총과 선물을 주신 분을 향해 매일매일 눈을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수전절(修殿節)은 성전을 새로 수리하고 단장한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리하고 단장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② 처음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찬 바람이 불어대는 겨울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와 의미를 몰랐습니다. 후에는 자신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손녀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 사순절 첫째 주간



##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성경본문

1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यो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 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 묵상글

예수님과 나사로,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그만 중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을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신 후에 나사로가 있는 곳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11:17).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이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10:40)\_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방’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약 30km였습니다. 걸어서 만 하룻길이었습니다. 나사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하루,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을 더 머무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하루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령이 예수님께 나사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베다니를 떠날 때, 나사로는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모르지 아니하시고,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향하시려고 하자, 말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베다니로 가시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심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이 서로 다를 때, 하나님의 시간이 훨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주시기 위해서 일 하였고, 십자가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1 주님의 시간과 당신의 시간이 달랐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 모든 일이 진행되었을 때, 얻게 된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 2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 성경본문

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라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 나이다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 묵상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가 죽은 당일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의 시신을 돌무덤 속에 두는 장사를 지냈고,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사로가 생전의 삶을 잘 살았는지 베다니는 물론 인근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많은 유대인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들은 관습대로 곡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말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궁극적인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위로 역시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커지고, 한숨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위로만 참 위로가 되며, 우리가 그 주님의 위로의 통로가 될 때,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했고, 오라비가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활 때에 다시 살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육체는 죽어 없어져도, 그 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오늘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드는 사순절의 한 날로 살아가십시다.

## 기도

사람이 유한한 존재이기에 사람의 위로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찾다가 더 큰 공허함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한 주님의 위로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께 연결하게 해주는 고리가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에 잇대어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사람의 위로를 기대었다가 공허함을 깊이 느꼈을 때는 없습니까? 지난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통로로 다가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주님의 위로의 연결고리로 다가갔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 ②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새로워져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 성경본문

<sup>33</sup>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sup>34</sup>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sup>35</sup>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sup>36</sup>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sup>37</sup>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sup>38</sup>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sup>39</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sup>40</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 묵상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하룻길이나 되는 먼 곳에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큰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만 여기고, 죽음은 언제나 비극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피할 것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암과 같은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과 같은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을 그저 재수 없는 사람이나 불쌍한 존재로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슬픔에 짓눌려 하나님을 향해 한 번도 눈을 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돌로 막힌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죽



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좌절이나 절망은 없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생명과 소망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목적 삼고 걸어가십시오.

## 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심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우리의 고집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주님을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심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사순절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❶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주님을 비통하게 하며, 주님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❷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좌절과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건져 올려 주신 일 중에 잊히 않는 또한 잊힐 수 없는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 성경본문

<sup>10</sup>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sup>11</sup>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sup>12</sup>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sup>13</sup>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sup>14</sup>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sup>15</sup>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sup>16</sup>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나 <sup>17</sup>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 묵상글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계명을 다른 십계명을 재는 척도와 같이 여겼습니다. 즉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일과 간음을 하는 일, 도둑질을 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려 허리를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땅을 보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이었고, 몸에 병을 짊어지고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만 받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열여덟 해나 괴롭히던 그의 허리가 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병자도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니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당장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사람으로 참 자유하게 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드십시오.

##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품어주고 자유하게 하기 위함임을 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여덟 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며 살았던 여인의 얼굴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허리를 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우리와 시선을 맞추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시선과 손길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회당장에게 안식일이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정죄의 도구가 된 것처럼, 당신에게 처음에는 은혜와 감사였던 것이 지금은 그저 당연해진 일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 ② 예수님께서서는 열여덟 해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산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된 일은 무엇입니까?

##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 성경본문

<sup>23</sup>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sup>24</sup>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sup>25</sup>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sup>26</sup>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sup>27</sup>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sup>28</sup>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sup>29</sup>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sup>30</sup>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 묵상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가 채소밭에 갓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고, 가루 서 말을 부풀리기 위해서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작고 보잘것없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씨앗이었습니다. 우리말에, ‘간이 콩알만 해지다’가 있습니다. ‘몹시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질 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콩알이 곡식 알갱이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짐의 정도가 훨씬 더 클 때에 ‘간이 쌀알만 해지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아주 미미할지라도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로 자라고, 반죽을 부풀려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주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왜 적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쓰다’라는 단어는 운동 선수가 상이나 메달을 받기 위해서 젖 먹던 힘까지 써서 전력 질주하거나, 상대방 선수와

있는 힘을 다해서 겨룰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그것이 세상의 지혜이며, 그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며, 더 많은 것을 즐기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매일 눈앞에서 말합니다.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많이 걷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 길을 비틀거리며 걸을 수도 있고,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길을 시작하신 분이시자, 그 길의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며, 그 길 끝에서 우리가 걷는 길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눈을 맞추고 걷는 사순절의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세상에 있는 다양한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인생을 살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보다 더 큰 문으로 들어가고 싶었고, 더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했고, 더 높은 곳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많이 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적지 않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간 삶에는 참된 만족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용기를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오늘도 내일도 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쉴 때까지 그 길을 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묵상질문

- ❶ 지난 삶 가운데 넓은 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기억을 떠올려보십시오. 그 선택을 하므로 어떤 교훈이나 유익이 있었습니까?
- ❷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용기와 결단을 위해 마음의 무릎을 주님께 꿇리십시오.

##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 성경본문

<sup>1</sup>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sup>2</sup>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sup>3</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sup>4</sup>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sup>5</sup>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sup>6</sup>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 묵상글

오늘 본문도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첫째 날 빛에서부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것은 숫자 7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창조가 완벽했습니다’라는 말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자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수종병(水腫病)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수종병’은 몸의 조직에 유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병인데, 수분이 차지 말아야 할 장기에 액체가 가득해서, 몸을 붓게 만듭니다. 이 병에 걸린 환자는 물(액체) 때문에 몸이 붓게 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식 안식일은 애써 외면하고 출애굽기식 안식일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른 믿음은 출애굽기식의 안식일(주일) 개념과 신명기식의 안식일(주일) 개념을 함께 갖

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식의 주일은 무엇을 금함으로써 이날이 구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명기식의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 기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으며, 부분의 진리만 쥐고서도 마치 그것이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의 지식이나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했음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금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② 하나님의 재창조에 동참하기 위해서 외면하고 있거나 품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서 품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사순절 둘째 주간



##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 성경본문

15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발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 묵상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잔치 중에서 최고는 결혼식 잔치일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식에 가는 것이 체면치레나 의무사항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평소엔 원하는 것들을 먹을 수가 있어서 결혼식에서 먹는 음식이 그렇게 맛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특별한 오락이나 여가활동이 없던 때에 마을 사람이나 친인척의 결혼식이 있으면, 참석해서 농사와 같은 노동에서 몸이 쉬를 얻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남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혼인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던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

데 예비 초청에서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실제 초청에서는 하나같이 사양했습니다. 한 사람은 발을 새로 샀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들은 주인(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자기에게 두었다가 주인의 잔치를 맛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주인의 잔치에 들어갔던 사람은 시내와 거리, 골목에 있던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인의 초대를 거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초대를 감격적으로 받았고, 초대를 받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날마다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맞는 사순절은 영적인 절기로 승화될 것입니다.

## 기도

우리를 주인의 잔치에 초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초대에 응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우리가 발을 샀다는 이유로, 겨릿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는 핑계로, 내 굳은 사고에 사로잡혀서 이 잔치를 떠나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만용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리와 골목에서 서성거리며, 울타리 밖에서 외로움과 좌절,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평생 각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하여 날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1 당신은 주님께서 잔치를 열고서 그 잔치에 초대하셨는데, 핑계를 대고 응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때 응하지 못하겠다고 댄 핑계는 무엇이었습니까?
- 2 당신의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언제 응하였습니까? 또한 예배와 성경공부, 기도가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일상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에는 어떻게 응하고 있습니까?

##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 성경본문

<sup>25</sup>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sup>26</sup>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sup>27</sup>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sup>28</sup>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sup>29</sup>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sup>30</sup>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sup>31</sup>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에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써 저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sup>32</sup>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sup>33</sup>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sup>34</sup>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sup>35</sup>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 묵상글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뒤를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며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셨지만,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위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비록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지켜 줄 것으로 생각한

다면 결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요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더함’에 있지 않고, ‘버림’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사고를 버려야 청년이 되어가고, 청년의 가치관을 버려야 장년으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총각과 처녀 때 혼자 살던 시절에 생각하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성숙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셨으며, 우리의 완벽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병든 이기심과 탐욕, 부정부패, 물질만능주의, 세속적 가치관 같은 것들을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 기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즐기지만 하는 무리 속에 있었다면 거기서 나와서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와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삶보다 더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없고, 영원한 이익을 얻는 삶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1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당신에게 더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 2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더함보다 버림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 성경본문

<sup>1</sup>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sup>2</sup>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sup>3</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sup>4</sup>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sup>5</sup>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sup>6</sup>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sup>7</su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 묵상글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헌신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하나님이었지, 죄인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양이 스스로 우리를 뛰쳐나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목자가 양을 잃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목자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약 목자가 양이 길을 잃은 것이 양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양을 발견했을 때, 버릇을 고쳐놓겠노라며 막대기로 두들겨 패거나, 잔소리를 퍼부은 후에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오히려 즐거워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가 ‘단수(單數)’가 아니라 ‘복수(複數)’입니다. 양쪽 어깨에 멘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가장 편안해질 상태로 메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에게 목자의 어깨 위보다 더 안전한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목자도 양을 찾느라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자신의 피곤함보다도 양이 가졌을 피곤함과 두려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양을 찾은 목자는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실 목자가 양을 찾기는 했지만 100마리였던 양이 200마리, 300마리로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수는 변함이 없었습니

다. 오히려 그 양을 찾느라 시간과 체력을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속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이 이 비유의 비밀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 기도

잃은 양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어깨에 메어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은 양이었던 것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옴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듯이, 아직 우리 밖에서 목자가 찾아와야 하는 양들이 있음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라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는 데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하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❶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의인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죄인을 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로 정리해 보십시오.
- ❷ 당신이 잃은 양과 같이 주님의 우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게 되었습니까?

##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성경본문

<sup>8</sup>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sup>9</sup>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sup>10</su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 목상글

당시 서민의 집은 대부분 창문이 거의 한 개밖에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은 대낮에도 아주 어두웠고, 일하려면 불을 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 바닥은 잘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이 깔려 틈이 많이 있었고 또한 바닥에서 찬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갈대와 마른 풀을 잔뜩 깔아놓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닥에 조그마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야 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비질을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은전을 찾은 여인은 기뻐하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그 은전은 단지 액면가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가난한 남자들이 아내가 될 사람에게 결혼 선물로 드라크마 10개를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여인은 그것을 구멍을 뚫어 목걸이나 머리띠로 만들곤 했습니다. 그 은전은 사랑의 징표이자 마지막 비상금과 같았습니다.

이 드라크마 비유를 심각하게 받아야 하는 것은 은전을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은전은 집 안에 있음에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전이 여인의 손을 떠나면 집 안에 있어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듯이,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예배당 안에 있어도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여인은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두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삶의 실상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그 인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빛이신 주님을 목격 삼고 사순절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주어도,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으며, 허물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발견해 주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급해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음을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이 드라마 은전을 하나만 잃어도, 가진 은전의 전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인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 눈을 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여인은 잃은 드라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 안을 비질했습니다. 당신이 등불을 켜고 비질을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② 드라마 은전은 집 안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분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성경본문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 목상글

예수님께서서는 길을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은전 비유 후에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을 수 있는 유산 중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둘째의 마음이 이미 집에서 떠난 것을 아는 아버지는 그의 요구대로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는 유산으로 받은 것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허랑방탕(虛浪放蕩)’의 사전적인 의미는 ‘말이나 행동에 거짓이 많고 착실하지 못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의 성경적 의미는 ‘낭비’입니다. 그 반대말은 ‘절약(저축)’입니다. ‘절약하다’는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어 가기 위해서 조심하다’입니다. 방탕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제멋대로 뿌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둘째가 유산을 낭비하기 전에 아버지를 떠남이 이미 낭비이듯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모두 낭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신나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랑방탕한 것입니다.

둘째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날에 크게 흥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판에서 돼지를 치는 처지가 되었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나 돼지가 주로 먹었던 쥐엄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둘째는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십시오.

## 기도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절약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지 않고, 주님을 목적 삼지 않는 삶은 모두 허랑방탕이고 낭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음을,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어 쉰 이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해 오늘도 눈을 드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혹 주님을 떠난 삶이 내 인생을 더 절약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 ②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 성경본문

26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27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 묵상글

만아들은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더니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것이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아들은 분노가 가득하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달랬지만 만아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실 만아들의 불만은 동생에 대한 것보다도 아버지가 불공평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나갔다가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잔치를 열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동생이 없는 동안 자신은 종처럼 일했음에도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도 잡아 주신 일이 없으면서, 재산과 인생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소를 잡아 잔치를 연 것을 보니,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는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겨지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만아들에게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지금 사는 것이 은총이자 복이고, 자신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잔치나 살진 송아지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온 동생은 다음 날부터는 아버지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 책임과 의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은 이미 멀리 가 있는 그 길을 둘째는 처음부터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생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집에 있다면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살아가십시오.

##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을 자랑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한 것처럼 과시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맏아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치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여긴 적은 언제였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것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느낄만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② 맏아들의 분노에, 아버지는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의 삶에 교정해야 하거나 교체해야 할 태도나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 사순절 셋째 주간



##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성경본문

<sup>9</sup>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sup>10</sup>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sup>11</sup>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sup>12</sup>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sup>13</sup>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 묵상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에서 ‘불의한 재물’은 재물의 본질이 의롭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사는 집 등이 모두 불의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하늘의 보화’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유한한 것’, ‘소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 재물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환원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위가 있다면 그 지위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학문을 많이 했다면, 그것으로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없어질 때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 즉 ‘죽을 때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섬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분이 제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집에 몰래 쌀을 갖다 놓고도 한 번도 내색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분은 제



가 인생에 깊은 좌절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가르쳐준 분입니다”와 같은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이어야 하고, 영원하지 아니한 재물 앞에서도 충성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것에도 충성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목적 삼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살아가십시오.

## 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의 재능과 지식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작고, 미미하게 보이는 행동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통로인 것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지, 재물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섬길지의 선택에서 자주 후자를 선택하고는 후에 후회하곤 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선택의 0순위가 항상 하나님에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눈을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주님은 불의한(영원하지 않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소유나 재능, 능력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 ②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 성경본문

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 묵상글

예수님께서서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 대조적이었습니다. 부자가 입었던 옷은 당시 최고급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었습니다. 특히 자색 옷은 노동자가 최소한 1년 동안 한 켤도 쓰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구걸하는 인생,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죽은 후에는 세상에서의 삶과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마저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자는 세상에는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은 이곳(음부)으로 오지 않게 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라고 답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다른 말입니다. 즉 “네 형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었으며, 그 사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참회의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차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주님을 향해 눈을 드십시오.

## 기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같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읊조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적이나 신비한 일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1 당신의 삶이 이 땅에서보다 죽음 이후에 더 아름다워지려면, 지금 바꾸어야 할 습관이나 태도는 무엇입니까?
- 2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큼니다. 당신의 삶을 더욱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 성경본문

<sup>1</sup>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sup>2</sup>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sup>3</sup>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sup>4</sup>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 묵상글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거나,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품고 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잘 모르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고, 아주 잘 아는 사람 사이에 일어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짐승을 잡을 때 놓는 ‘덫’이나 ‘올가미’ 또는 땅에 파 두는 ‘함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거나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수백 킬로그램이나 되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로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악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괴해자의 가장 큰 무기는 용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일용할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십

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온전히 믿는다면, 스스로 조심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 기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처를 받은 것은 깊이 생각하지만, 상처를 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인 것도 자인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임을 되새깁니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를 살리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용서도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❶ 지나온 삶에서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에서 어떻게 벗어나  
날 수 있었습니까? 혹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은총이 내게 머물기를 조  
용히 읊조려 봅시다.
- ❷ 지나온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용서  
받았습니까?

##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 성경본문

<sup>5</sup>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sup>6</sup>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 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뿔나뭇더러 뿌리가 뿔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sup>7</sup> 너희 중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sup>8</sup>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sup>9</sup>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sup>10</sup>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 묵상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고, 마음과 일상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삶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작은 씨앗의 대표인 겨자씨 한 알 크기의 믿음이 있으면 뿔나뭇더러 ‘뿔혀서 바다에 심겨져라’라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자라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는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생명이 중요하듯이, 믿음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좋은 주인의 집안일을 전반적으로 감당하고도 주인과 겸상하거나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이 자신을 사 준 것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종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서도 “우리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종 된 사람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드러나는 일이든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기 위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 기도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믿음과 용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됨으로 날이 갈수록 우리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❶ 예수님께서서는 겨자씨 크기의 믿음도 큰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❷ 당신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 성경본문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 묵상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센병자 10명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센병자들을 격리하는 율법의 규정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찍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들은 들판에 집을 지어놓고 집단으로 거주하거나 산속에 토굴을 만들어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이 성밖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백성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보다도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삶과 죽음에 아무도 개의치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한센병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격리와 소외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들이 그런 병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이고,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편견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선생님(스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



수님께 돌아와 주님의 발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표한 사람은 10명 중에서 1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도 그가 유일했습니다.

한센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듯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바뀐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영원한 삶을 허락받았듯이,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매일의 삶은 영원에 잇대어진 삶이 될 것입니다.

## 기도

한센병자 열 명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믿음의 정면교사(正面教師)가 되게 하시고, 나머지 아홉 명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멀쩡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도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영원에 잇댄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 꿇리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므로, 우리가 속한 환경을 치유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❶ 당신이 주님께 나아와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간절하게 불렀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❷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게 된 10명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주님께 돌아가 무릎을 꿇고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 성경본문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3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4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5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 또 룻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 묵상글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바리새인 무리가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인도자로 인정함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자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재림하시는 때가 노아의 시대와 룻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셨고, 룻의 때는 불로 심판하셨습니

다. 그 두 심판의 공통점은 갑자기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두 시대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그러한 일상의 일에만, 욕망을 따른 삶에만,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불효는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고,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신앙적인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진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② 노아시대와 롯의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상의 일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영적인 의미로 승화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사순절 넷째 주간



##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 성경본문

<sup>1</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sup>2</sup>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sup>3</sup>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sup>4</sup>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sup>5</sup>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sup>6</sup>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sup>7</sup>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sup>8</su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 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 목상글

예수님께서는 어떤 도시에서 일어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아무 데도 기댈 데 없는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에게 과부의 하소원은 그저 공기의 진동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의 외면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반복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장은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많이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원한의 정당함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과부가 가진 원한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재판장은 과부에게 다른 죄목을 덮어씌워서 감옥에 처넣었을 것입니다. 과부가 찾아오면 울수록, 재판장의 불의함과 탐욕적임, 무능함이 점점 더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망신당할 지경이 될 것 같아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절망이 재판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인 우리가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더디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주님께 매어주는 사랑의 줄과 같고,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 들게 해주는 주님의 은총과 같습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 기도

때때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이 지체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기도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더 높은 길이 있음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풀기 원하는 ‘원한’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 주며, 우리의 무릎을 평생 하나님께 꿇리게 하는 은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원한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는 것을 기억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❶ 당신이 오랫동안 드린 기도 제목 중에서 아직 응답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계속 드리며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 ❷ 당신이 오랫동안 드린 후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

## 성경본문

<sup>9</sup>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sup>10</sup>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sup>11</sup>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sup>12</sup>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sup>13</sup>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sup>14</su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 묵상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 때-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전을 찾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위해서 따로 헌신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세리는 자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곤 했기에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삶과 기도는 표면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토색(강제로 빼앗음)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으며,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봐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할 때, 집게손가락으로 세리를 지목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집게손가락은 신체 일부가 아니라 ‘비수



(匕首)'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지성소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리가 드린 기도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영성을 이어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짧은 한 문장이지만, 마음이 놀리고 힘들 때,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할 때, 형편없었던 지난 삶을 새롭게 하기 원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평해 주셨습니다.

## 기도

바리새인의 삶은 속이 병들었고, 세리의 삶은 겉이 병들었습니다. 자연인인 우리는 바리새인의 속과 세리의 겉을 닮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세리와 같이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영원한 것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당신의 삶과 믿음생활에 바리새인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세리와 같은 태도는 어떻게 견지하고 있습니까?
- ②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반복해서 가만히 읊조려 보십시오.

##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 성경본문

15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6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 묵상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 주시기를 바라며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덕담이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격려가 아니라 꾸지람이었습니다. 특히 ‘꾸짖다’는 동사는 ‘가격을 정하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돈도 안 되는 것들은 빨리 데리고 가시오”라고 말하며 화를 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뻣뻣해져서, 사람들에게 고자세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자기들이 막을 수도 있고, 허락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아이들이 갖는 순수함, 자족감, 정직, 순종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뜻합니다. 특히 본문의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나 ‘유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오직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어린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신을 크게 만드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추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목적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 기도

어린 아기는 그 부모의 돌봄이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진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님을 향해 눈을 들므로 성숙해 가고, 원숙해 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❶ 무엇인가를 열심히 또 제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 ❷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 성경본문

18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 묵상글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점까지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 중 사람에 관한 계명(5-10번째 계명)을 말하자, 그는 그런 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에게 율법 지킴은 자기 속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몰아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인지 또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과도한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혹 우리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한 가지는 없습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꼭 움켜쥐고 있는 한 가지는 없습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비로소 주님의 새롭게 해주심을 경험하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드십시오.

## 기도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추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인생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들었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제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다가 낭패를 겪은 일은 없습니까?
- ② 나에게 적용해야 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떠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를 가만히 읊조려 봅시다.

##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 성경본문

<sup>1</sup>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sup>2</sup>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sup>3</sup>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sup>4</sup>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sup>5</sup>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sup>6</sup>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서 있느냐 <sup>7</sup>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sup>8</sup>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 <sup>9</sup>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sup>10</sup>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sup>11</sup>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sup>12</sup>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sup>13</sup>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sup>14</sup>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sup>15</sup>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헤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sup>16</sup>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 묵상글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천국은 포도원의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하나님의 나라)은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주인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포도원의 주인(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아침 일찍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제3시(오전 9시)와 제6시(정오) 그리고 제9시(오후 3시)에도 품꾼을 불러 들였습니다. 심지어 제11시(오후 5시)에도 부름받지 못했던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품삯을 지급할 때 새벽에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까지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만 주자, 불평불만을 터트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택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즉 ‘먼저 온 사람에게 적게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많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인을 섬기며, 주인과 교제한 것이 은총이고 복입니다. 또한 나중에 온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불러주신 것이 은총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목격 삼고 사는 사순절의 한 날이 되게 하십시오.

## 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으며, 그곳은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임을 마음에 또렷하게 잘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새벽이나 이른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포도원에 머물게 되었다면, 그렇게 일찍 불러주심을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방향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는데, 그런 자신을 주님의 포도원에 불러주심으로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에 마침표를 찍어주셨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 은총에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감사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당신보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과 어떠한 섬김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 ② 당신보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과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과 어떻게 섬김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더 깊고 넓은 교제와 섬김을 위해 바꾸어야 할 언행은 무엇입니까?

##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 성경본문

<sup>31</sup>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sup>32</sup>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sup>33</sup>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sup>34</sup>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 묵상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약하면,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또렷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같은 내용을 가장 진지한 자세로 세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상-정치적 메시아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구약성경이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걸으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승리하도록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아시고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고 빈들을 통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신비하고도 오묘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손길을 내밀고 계



시고,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생각으로, 사람의 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길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 기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무기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예수님께 응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암울하게 보이고, 긴 터널 속과 같이 여겨져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자기 생각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② 당시에는 펼쳐진 상황이나 걷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가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던 것을 깨달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사순절 다섯째 주간



##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 성경본문

<sup>35</sup>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sup>36</sup>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sup>37</sup>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sup>38</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sup>39</sup>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sup>40</sup>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sup>41</sup>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sup>42</sup>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sup>43</sup>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sup>44</sup>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sup>45</sup>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묵상글

예수님께서 당신이 종교지도자들에게 넘겨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삼 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진지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주님을 세속적인 메시아의 모습으로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야망이 컸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자신들이 주님의 영광 중의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좌의정에, 또 한 사람은 우의정에 앉게 해 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열 제자들은 그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그 말을 꺼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제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서는 역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섬기는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섬김의 사람과 봉사의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나무로 설명하면, 밑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나중에 나온 가지일수록 먼저 나온 가지 위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고 약한 가지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온 가지는 가장 아래쪽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밑가지가 든든할수록 건장한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밑가지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본받아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눈을 들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 기도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자화상이자,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서도 더 많이 갖고 싶었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으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고 되고, 윗가지가 되기를 고집하기보다 밑가지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역설의 진리가 아니라 생명의 진리인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1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했습니다. 당신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 2 당신의 삶에서 ‘역설의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이 ‘생명의 진리’로 증명되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성경본문

<sup>46</sup> 그들이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sup>47</sup>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sup>48</sup>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sup>49</sup>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sup>50</sup>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sup>51</sup>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sup>52</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 묵상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서서 예리고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 바디매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구걸하고 있었고,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멀리당했고,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디매오는 사람들에게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서 힘을 다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질책에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시자, 그는 겹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겹옷은 낮에는 겹옷이었지만 밤에는 이불이었고, 그의 신분이었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겠다는 결단과도 같았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김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아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디매오'의 아들, '바디매오'라고 기록된 것은 그 부자(父子)가, 그때로부터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초대교회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앞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늘 천대받고, 조롱의 대상이었는데, 자신에게 광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 주님을 바르게 기억한다면, 어찌 주님을 섬기는 그의 삶이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신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 기도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눈뜸이 없었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해 눈뜸이 없이도 믿음생활을 바르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교양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평생 주님을 바르게 따르며,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라고 답하므로, 이 시대를 사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팔로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❶ 바디매오는 앞을 볼 수 없었음에도, 앞을 보는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욱 바르게 보았습니다. 당신보다 어린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 당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인생의 진리를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 ❷ 주님께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 성경본문

<sup>1</sup>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sup>2</sup>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sup>3</sup>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sup>4</sup>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sup>5</sup>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sup>6</sup>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sup>7</sup> 모든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sup>8</sup>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sup>9</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sup>10</sup>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 묵상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세(稅) 수입이 많은 곳 가운데 하나인,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는 것은 지난날 그가 세리의 일을 극성스럽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은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으로도 해결해 주지 못했고, 그가 가진 부유함으로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뵈기를 원했지만, 그의 키가 작았고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어서 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키가 예수님을 뵈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문제라면, '많은 사람'은 환경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고, 그것을 막는 자신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세리장이었기에 상당한 나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



가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그의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또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기 재산의 많은 것을 내놓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도둑질한 것의 4배를 갚는 것은 율법(말씀)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찾으러 오신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살아가십시오.

## 기도

삭개오에게 참된 만족을 주었던 것은 그의 신분도 아니었고, 그의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방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무화과나무 위에 있던 그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움켜쥐었던 것을 놓고 더불어 살 줄 알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름이 불린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의미와 가치가 새로운 사순절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1 삭개오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당신의 지난 인생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시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 2 당신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과 외부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성경본문

16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8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21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24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 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26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들어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 묵상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서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시기 위해 므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종 열명을 불러서 한 므나씩 나눠주고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부류의 종은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겨주었습니다. 최고의 보상은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가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섬은 다음의 섬김을 위한 디딤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종은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남겼다고 아뢰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다섯 고을을 섬기는 것을 상급으로

주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너는 왜 저 사람처럼 열 므나를 만들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이 그의 최선인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온 사람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므나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 한 므나는 열 므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도록 했고, 그는 주인에게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므나를 나누어주면서 “장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벌라’가 아니라 ‘거래를 많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계시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주어진 삶에 신실’입니다. 또 한 열 므나를 남겨온 종에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의 대부분 작게 보이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작게 보이는 일의 대부분은 반복적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작은 일들이 다 더해지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에 신실하기 위하여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 기도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물질, 가족, 일터, 재능 등의 므나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므나를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신실함과 섬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 므나와 다섯 므나를 남긴 사람이 우리의 샘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과 믿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주신 므나를 수건에 싸두고 방치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❶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므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므나는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더해지고 있습니까?
- ❷ 주인은 므나를 남긴 종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충성해야 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 성경본문

<sup>1</sup>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sup>2</sup>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sup>3</sup>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sup>4</sup>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sup>5</sup>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sup>6</sup>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sup>7</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sup>8</sup>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묵상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무교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아의 한센병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막 14:3).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그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향유는 당시 근로자의 300일 치(1년 연봉)에 해당하였습니다.

당시 잔치를 할 때, 주인공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였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 주님만 섬길 것이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가롯 유다는 그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액수면 한 가정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고, 300명의 사람에게 하루 3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큰 액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라 자신이 가져갈 돈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순간에 그는 추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가 행한 것이 당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막 14:9)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얼핏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낭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고, 그 가치가 영원히 승화되었습니다. 사랑은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 가치는 영원까지 승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이라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기 위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 기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 향유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어드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진리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낭비하는 사랑을 베풀어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영원까지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❶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❷ 사랑이 낭비라면, 지금 당신이 낭비해야 할 것, 낭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떠올려보십시오. 그에게 어떤 사랑의 낭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 성경본문

<sup>28</sup>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sup>29</sup>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벳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sup>30</sup>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sup>31</sup>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sup>32</sup>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sup>33</sup>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sup>34</sup>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sup>35</sup>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sup>36</sup>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겹옷을 길에 퍼더라

## 묵상글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두 제자에게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 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니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는 스가랴의 예언(슥 9:9)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두 제자에게 나귀를 사 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풀어서 오고, 누가 왜 풀어 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을 어린 나귀와 동일시 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인가에 묶여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그 매듭을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매고 있는 매듭을 풀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그 나귀는 아직 약하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어서 비틀거리며 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틀거리고, 서툴고, 연약해 보이는 나귀와 같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어린 나귀 위에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웠습니

다. 이 장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말에 비하면 나귀는 몸집이 작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주님의 삶의 정신과 태도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어린 나귀가 되어서 주님을 태우고,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 기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나귀는 주님을 태우고 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쉴 때까지 주님께서 타시는 나귀로 쓰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계속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타고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꿈꾸기보다, 섬기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예수님께서 보낸 두 제자가 나귀 주인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기꺼이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당신의 믿음 생활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 ② 이전에 사람을 태운 적이 없었던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태워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태우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 성경본문

<sup>45</sup>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sup>46</sup>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sup>47</sup>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sup>48</sup>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 묵상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힘을 다해 소리 높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로 통곡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상과 장차 당하게 될 상황을 생각하니 눈물이 견잡을 수 없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환전상과 여러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은 일반 화폐를 성전에 납부하는 화폐로 바꾸어주고 높은 수수료를 챙겼고,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팔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이방인의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유한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그 속에 누가 거하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불립니다. 그 속에 의사와 간호사, 환자가 있으면 병원이 되고, 학생과 교사가 있으면 학교가 됩니다. 물론 강도들이 있으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성전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오늘도 눈을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인생을 성전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제국으로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 가득하여 강도의 소굴과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우리의 인생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편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또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어 가는 사람이 날로 많아지게 하시므로, 주님의 이름이 더욱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출발점이 나 자신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인 당신의 삶에서 쫓아내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②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을 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떠올리셨습니다. 성전인 당신의 인생은 지금의 모습으로는 무엇이라 불리겠습니까? 또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으십니까?

##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 성경본문

<sup>1</sup>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sup>2</sup>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sup>3</sup>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sup>4</sup>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매 <sup>5</sup>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sup>6</sup>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 묵상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다른 열 한 제자와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유월절은 최고,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해서 섬기는 절기였습니다. 그런 절기에 가장 경건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락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간 것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 복음에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요 13:2)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속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에게 이런 일련의 과정의 일이 일어난 것은 유다의 마음이 이미 사탄의 꾀에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스승을 넘기는 대가로 은 30세겔을 받기로 했습니다(마 26:15). 구약성경에 의하면, 그 액수는 소가 그 뿔로 남·여 종을 받아 죽였을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이었습니다(출 21:32). 유다는 스승을 종의 몸값 정도를 받고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유다는 예수님을 몰래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려드는 것이 기뻐지만, 이제는 내어 보내는 것이 그의 일이 되었습니다. 또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하고, 그의 인생도 굽게 만듭니다.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앞에도 유다의 길과 다른 제자들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힘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기도

열두 제자는 동일하게 선택받았고, 주님과 함께 지내며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다른 제자와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선택한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유다의 모습이 우리를 비추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오늘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쉴 때까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의 신앙의 절기이자 구원의 절기, 생명의 절기인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일 공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 ② 유다는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 불의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믿음 생활에서 이와 같은 경험이나 반대의 경험인 생명의 통로가 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었습니까?

## 찬송가

343 시험 받을 때에

## 성경본문

7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르니라 8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9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0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2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나라

## 묵상글

하나님께서는 1년에 세 번의 절기-유월절(무교절), 칠칠절(오순절), 초막절(수장절)-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외국에 사는 사람에게 세 절기를 모두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 년에 세 번 모두는 아니어도 한 번은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대부분 그 한 번을 유월절에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는 전국각지와 해외에서 온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당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가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방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서 준비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13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들어갈 방이 있겠습니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안에서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의 집까지 따라가서,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라고 물어보면 큰 다락방(안방+거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물을 길으러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여자였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

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길으러 나온 사람은 당시 남자들이 잘 하지 않는 물 길는 일을 기꺼이 했고, 그래서 두 제자가 그를 만났고, 그가 일하는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킨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은 첫 성찬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행동이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의 신실한 통로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향해 눈을 드십시오.

## 기도

유월절 양을 잡는 절기에 짐승을 잡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범죄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유월(逾越)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생명을 얻은 것에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잘 새기고, 늘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을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성찬이 되었습니다.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에 순종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 ②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일상의 일을 한 것이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일상의 삶이 주님의 통로가 된 적이 있습니까?

##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성경본문

<sup>39</sup>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sup>40</sup>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sup>41</sup>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sup>42</sup>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sup>43</sup>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sup>44</sup>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sup>45</sup>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sup>46</sup>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 묵상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시간이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첫 성찬)의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곳은 ‘겻세마네(기름 짜는 틀)’라고도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찢어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도 몹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직면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더 잘 가실 수 있도록 천사가 힘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유도 선수나 레슬링 선수들은 정해진 경기 시간 동안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경기합니다. 또한 그때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날 땀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력을 다해서 기도하셨든지 땀이 핏방울 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혈한증(血汗症)’이라고 합니다.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나 극심한 고민에 짓눌리게 되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성분이 몸



에서 나와서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아니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겹세마네에서 당신을 기름 짜듯이 짜신 주님의 은총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 기도

우리 같이 형편없는 존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겹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릴 정도로 진력을 다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이제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사들이 기도하시는 주님께 힘을 더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무릎을 꿇림으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주님께 연결해 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고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 습관은 어떠합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긴 호흡의 기도와 짧은 호흡의 기도, 깊은 호흡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바꾸어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 ②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피하고 싶은 것 중에서 직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직면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 찬송가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 성경본문

35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6 거기 앉아 지키더라 37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38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45 제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7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49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 묵상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제6시(정오)에서부터 제9시(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에 햇살이 가장 강하고, 결코 있던 해가 없어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중 아홉 번째가 '흑암 재앙'이었는데, 온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짙은 어두움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어두움이 임한 것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며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절규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셨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들으셨지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구해낼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 반대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셨고, 또 구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셨음에도 끝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것을 보고 계셨던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51절).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까지 흘려 주시고, 성소 휘장을 찢어주신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 기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세 시간 동안 흑암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앞을 가려 바르게 보지도 못하게 하고,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게 함에도 거기에서 뒤돌아서기보다, 죄악의 달콤함에 탐닉하여 있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함으로 우리의 어둠을 걷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이신 주님과 매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1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고 여겼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 2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새롭게 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 성경본문

<sup>57</sup>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sup>58</sup>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sup>59</sup>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sup>60</sup>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sup>61</sup>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sup>62</sup>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sup>63</sup>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sup>64</sup>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sup>65</sup>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sup>66</sup>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 묵상글

하나님께서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시신을 밤새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신 21:22-23).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저물었을 때(오후 6시경)에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는 알려지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두려워하여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물질 때문인지, 그가 누리고 있는 지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줄 것을 요청했고,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내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정성을 다하여 당시 최고급의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둔 무덤은 새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임이 당할지라도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은 무덤을 막은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한 것이 더욱 주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종교 지도자의 길, 빌라도의 길, 아리마대 요셉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는 눈을 들어 무엇을 목적 삼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으면 눈부신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맞아줍니다.

## 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의 무덤 돌문을 인봉하고,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킨 것이 역설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더욱 또렷하게 증명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설의 진리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명한 사람 같지만 유명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길이 유대 종교 지도자이나 빌라도 같지 않게 하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질문

- ❶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일 때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 ❷ 당신의 삶이 주님과 함께 부활 속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